

###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3월 9일 광주 연주회

감동의 선율을 비처럼 내린다

1984년 결성  
‘최고의 4인’ 극찬 받은  
가장 유명한 앙상블 팀

1882년 창단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전 세계 클래식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관현악단 중 하나다.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 유명 지휘자가 거쳐간 베를린 필은 또 다양한 앙상블 팀의 활동으로도 유명하다.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은 ‘베를린 필하모닉 12 첼리스트’와 함께 가장 유명한 앙상블로 런던 위그모어홀에서 데뷔 콘서트 당시 영국 언론으로부터 ‘Four of the Best(최고 가운데 4인)’라는 극찬을 받았다.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이 광주 클래식 팬들을 만난다. 3월 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지난 2013년 첫 내한 공연을 가진 이들은 대전 예술의 전당(8일)을 시작으로 광주를 거쳐 서울 예술의 전당(10일) 공연을 이어간다.

1984년 결성된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



### 베토벤·브람스 연주 ... 피아니스트 조재혁 협연

르벳은 198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8년 간 베를린 필 수석 악장을 맡고 있는 다니엘 스타브라바를 중심으로 현악 파트 수석들이 함께 결성한 앙상블이다. 다니엘 스타브라바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부터 클라우디오 아바도를 거쳐 현재의 사이먼 래틀까지 베를린 필의 영광을 함께 한 지휘자와 모두 공연한 몇 안되는 단원이다.

제2바이올린은 베를린 필 제2 바이올린 수석 크리스티안 스타델만이다. 1985년 입단 후 1987년부터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올라의 나이하르트 레자는 1987년 수석으로 영입됐다.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은 결성 후 2009년 첼리스트 안 디셀호스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창단 이래 멤버 교체 없이 공연하며 완벽한 앙상블을 자랑하고 있다. 안 디셀호스트의 뒤는 1994년 입단한 디트마르 슈발케가 있고 있다.

베를린 필 실내악 페스티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등 세계 곳곳의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은 베토벤, 멘델스존, 쇼스타코비치 등을 주제로 30여장의 음반을 발표했으며 작곡가 레거의 곡



조재혁

들을 연주한 음반은 독일 음반 평론가협 회상을 받았다.

이번 공연에는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함께한다.

줄리어드 음대학·석사, 맨하튼 음악대학 대학원 박사를 마친 조 씨는 스페인 KBS 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 음악’ 고정 게스트로 활동하며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현악중주 12번 Eb장조 Op. 127’,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f단조 Op.34’다.

“별다른 준비나 공부 없이 그냥 와서 즐기면 된다. 우리 음악이 알아서 당신 마음을 찾아갈 테니 말이다.” 한 인터뷰에서 다니엘 스타브라바가 전하는 말이다.

티켓 가격 8만원, 6만원, 4만원, 2만 5000원. 문의 062-523-03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김환기 작품 46점 100억7744만원 지난해 미술품 경매 낙찰 총액 1위

미술시가감정협 ‘2015 작품가격’ 펴내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펴내는 미술 작품 가격 단행본 시리즈인 ‘2015 작품가격’이 나왔다.



296페이지로 발행된 ‘2015 작품가격’에는 국내 작가 1500여명, 해외 작가 250여명, 고미술 1400여점 등 모두 8200점의 작품 가격이 실렸다.

이 책은 지난 한해 동안 국내 미술시장을 비롯해 서울옥션, K옥션, 아이옥션 등 국내미술품경매사가 진행한 경매와 세계적인 경매사인 크리스티에 출품돼 낙찰된 국내 작가들의 작품 가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협회는 지난 1996년부터 전국 12개 도시에 조사팀을 구성해 경매, 아트페어, 전시 등 작품가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작품가격 책자를 펴내고 있다. 가격은 1만3000원이다. 문의 02-514-9237~8.

한편 이 책자에 따르면 지난해 미술품경매에서 낙찰총액 1위는 신안 출신 고(故) 김환기 화백이었다. 국내 8개 미술품경매회사의 지난해 경매실태를 분석한 결과 김 화백의 작품 46점이 100억7744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이우환(72점 87억원), 3위 김창열(72점 34억원), 4위 오지훈(63점 29억원), 5위 정성화(46점 2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매낙찰가 톱10 중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옥



신안 출신 고(故) 김환기 화백

션 경매에서 15억원에 낙찰된 김 화백의 작품 ‘무제 16-VII-68 #28’ 등 3점이 4, 6, 10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작품은 제프쿤스의 ‘꽃의 언덕’으로 24억4700만원에 낙찰됐다. 뒤를 이어 이우환 화백의 ‘From Line’(18억원), 앤디 워홀의 ‘Flowers’(17억원), 백자청화육각향로(13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작품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작가는 이대원 화백으로 210점이 27억43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차이밍량 감독 광주에서 ‘관객과의 대화’

25일 광주극장 ‘안녕, 용문객잔’ 상영



세계적인 시네아티스트 차이밍량 감독(사진)이 광주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이 진행하는 행사로 차이밍량은 올 9월 예술극장 개관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차이밍량은 대만을 대표하는 뉴웨이브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예정만세’ 등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차이밍량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대표작 ‘안녕, 용문객잔’(2003) 상영 후 관객과 대화를 갖는다.

‘안녕, 용문객잔’은 내일이면 문을 닫는 한 영화관의 마지막 상영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영화관에 관한 헌사’로 불리며 시네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내일 문을 닫게 되는 낡고 오래된 북극극장은 마지막 작품으로 호급진 감독의 ‘용문객잔’을 상영중이다.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극장에는 각각의 사연을 갖



‘안녕, 용문객잔’

고 있는 이들이 모여든다.

한편 차이밍량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23~30일까지 광주 아시아창작스튜디오(옛 서구청사)에서 진행하는 ‘AAT(Asian Arts Theater) 워터스쿨’에 참가하며 24일에는 아시아예술극장이 서울 두산아트센터와 진행하는 컨템포러리 토크에서 영화 평론가 정성일과 대담한다. 영화 티켓 4000원. 상영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www.cjhellovision.com